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에서 나타나는 로마 공화정 이상(*Roman Republican Ideal*)의 해부

권동욱

1. 들어가며: 공화주의와 위르투스(*Virtus*)

근대 초기 영국에서 고전적 인문주의(classical humanism)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문화언어의 창고로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중 특히 공화주의(republicanism) 담론은 주목할 만한 것으로서 이것은 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서 덕이 높은 조연자들이 군주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행위를 정당화해 줌과 동시에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시민적 덕목(civic virtue)의 배양을 도왔다(Peltonen 1-17; Skinner, *Visions of Politics* 1-38). 공민적 인문주의(civic humanism)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사상적 흐름과 더불어, 후사가 없던 엘리자베스(Elizabeth)의 뒤를 이을 군주로서 스코틀랜드의 여왕 매리(Mary)와 그의 아들 제임스 6세(James VI)의 자질과 정통성이 의심받는 정치적 상황은 권력의 유지와 이양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상황은 많은 이들이 선거에 의한 군주제 및 당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채택했던 공화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마련했다(Hadfield, "Shakespeare and Republicanism" 465). 공화주의의 이상 및 그에 대한 탐구는 정치와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룬 글뿐만이 아니라 문학의 영역에서도 수시로 등장하였다(Hadfield, *Shakespeare and Republicanism* 13).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는 1594년에 『루크레티아의 강간』(*The Rape of Lucrece*)에서 로마의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성립되는 순간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로마극이라 불리는 『줄리어스 시저』(*Julius Caesar*)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에서는 로마 공화정 말기와 제정 성립 시기의 정치적 갈등을 직접적으로 조명하였다. 즉,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정치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당대의 공화주의 담론과 긴밀히 조응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2 □ 권 동 육

『코리올레이너스』(*Coriolanus*) 또한 넓은 맥락에서 공화주의의 담론에 가담하고 있다. 로마 공화정 초기의 격변기가 작품의 주된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거나 셰익스피어가 코리올레이너스라는 인물을 통해 위르투스(*virtus*)로 대변되는 공화주의적 덕목(*republican virtue*)의 성격을 세밀하게 탐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더욱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가 배양한 최고의 인간상, 즉 위르투스의 이상을 체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공화정의 정치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조국으로부터 추방당한다. 이 때 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를 넘어 로마 공화정의 이상으로서 위르투스의 실패를 뜻한다. 코리올레이너스가 체현하는 위르투스는 개인의 역량을 공공의 이익으로 치환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만이 로마 공화정을 대표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만들어내면서 뒤뜰린 개인주의를 생산해낸다. 본 글은 셰익스피어가 위르투스와 개인성의 문제적 관계에 천착하면서 이러한 덕목을 전제로 하는 로마 공화정의 이상이 공동체의 차원에서 성립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자기파괴적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할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 개념인 위르투스의 정의와 역사적 변천, 그리고 그것이 공화주의와 맺는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코리올레이너스가 표상하는 위르투스의 의미와 그가 작중 로마 공화정과 빛의 갈등의 함의를 더 분명하게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위르투스(*virtus*)는 남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위르(*vir*)에서 기원한 것으로 로마 공화정 시대부터 트레상스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용법이 바뀌어왔다. 『코리올레이너스』의 원전이 되는 플루타르크(*Plutarch*)에 따르면 로마 공화정 초기 위르투스는 그 본연의 의미에서 파생된 용맹함(*valiantness*)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¹⁾ 셰익스피어 또한 플루타르크를 따라 무사적 가치를 로마적인 것(*Romanitas*)의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바라본다. 그러나 탁월한 무용의 개념만으로 위르투스의 함의를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로마 공화정에서 큰 공을 세운 무사가 집정관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당시 로마가 무력을 숭상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내부적으로는 사악한 자의 독재를, 외부적으로는 타국에 의한 전제(專制)를 막고 자치를 유지하기 위해 전쟁 수행권을 비롯한 행정권을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한 능력있는 무사에게 부여하

1) 플루타르크의 인용은 셰익스피어가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노스 경(*Sir North*)의 번역본을 참고한 Geoffrey Bullough Ed.,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1966)에 의거한다. “로마에서 용맹함은 그 어떤 다른 덕목들보다도 높이 칭송되었다. . . . 따라서 라틴어로 위르투스는 용맹함에 버금가는 의미를 지녔다.”(*valiantnes was honoured in Rome above all other vertues . . . So that Virtus in Latin, was asmuche as valliantnes; 506*)

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집정관은 국가의 지배자가 아니라 귀족들로 이루어진 원로원 및 평민들이 주축이 되고 호민관들이 대변하는 평민회와 함께 권력을 분담하면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 집행의 체계 중 일부를 담당한다. 따라서 집정관은 정치가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한다는 공공선의 이념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 그러한 공공선의 함양을 위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공화정에서 위르투스는 무력을 근본으로 하되 공공선을 증진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로마 공화정이 몰락한 이후 제정이 성립되면서 위르투스의 용법 또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를 증언하는 상징으로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이 오거스터스(Augustus)에게 헌정한 “덕목의 방패”(clipeus virtutis)를 주목할 만하다. 이 방패에는 용맹(virtus), 관대함(clementia), 정의(iustitia), 경건함(pietas)의 네 단어가 새겨져 있는데 이 때의 위르투스는 용맹이라는 무사적 가치를 포함하되 다른 세 가지 덕목과 어울려 정치가의 윤리적 자질이라는 의미 또한 가지게 된다. 그러나 로마의 무력이 황제에게 집중되고 전쟁 및 국경 방어의 임무를 시민군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이 맡게 되면서 공화정 당시 시민의 덕목으로서 위르투스의 자질은 황제를 비롯한 소수의 장군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McDonnell 385-89). 다시 말해 위르투스는 공화정을 지탱하는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이라기보다는 지도자 혹은 군주가 다수를 올바르게 지배하기 위하여 응당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여겨졌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위르투스의 개념은 브루니(Leonardo Bruni)를 비롯한 15세기 이탈리아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무력뿐만 아니라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여타 능력 전반을 뜻하는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으로 정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는 군주정의 맥락에서 위르투스에 대해 용법 상 획기적인 변화를 더하였다. 그가 사용하는 비르투(virtù)라는 개념은 악덕에 대응하는 ‘미덕’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빈번하게 군주의 역량, 결단력, 힘 등을 가리킨다. 특히 그가 군주의 냉정한 결단력을 요구할 때 때로 비르투는 비윤리적으로 여겨지는 특성(예컨대 무자비함)과 결부되기도 한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운 혹은 조건으로서 포르투나(fortuna)에 대비되어 운명에 맞서는 개인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을 의미하기 위해 비르투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²⁾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위르투스의 개념은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가지는 함의를 달리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 살펴볼 『코리올레이너스』의 경우 위르투스는 무력을 일차적 의미로 갖되 공화정체에서 요구되는 시민적 덕성의 자질까지도 포함

2) 시민적 덕성으로서 위르투스에 관해서는 브루니의 『피렌체 찬가』(The Panegyric to the City of Florence)를 참조하고, 비르투에 관해서는 『군주론』(The Prince), 특히 제1장, 6장, 7장, 17장, 25장 등을 참조할 것.

4 □ 권 동 육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

2. 위르투스의 현현(顯現)으로서 코리올레이너스?

코리올레이너스를 집정관으로 선출하기 전에 행한 칭송연설에서 코미니어스(Cominiu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용맹함은 최고로 뛰어난 덕목이고 / 이를 소유한 자를 가장 명예롭게 만듭니다”(valour is the chiefest virtue, and / Most dignifies the haver; 2.2.82-3). 여기에서 용맹함으로서 위르투스가 명예(honour)를 가져온다는 인식은 공화주의 이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공화주의의 본령이 구성원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봉사하여 공공선의 증진을 불러오는 시민적 덕성의 함양과 발현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면, 명예 혹은 영광(glory)은 공동체에 합당한 기여를 한 개인에게 수여하는 보상임과 동시에 재능을 가진 자가 그의 능력을 공공선의 증대에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념이다. 또한 공화주의는 시민이 스스로 자질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공평하게 보장함으로써 시민적 자유(liberty)와 공공선의 상호 증진을 강조한다(Skinner, *The Foundations* 179-80).³⁾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둘 때, 순수한 형태의 위르투스는 공동체의 안녕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덕목임과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영광을 획득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코리올레이너스는 이러한 (용맹함으로서) 위르투스의 이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로서, 그는 16세에 이미 신성 공화정을 공격하며 복권을 시도한 로마의 마지막 왕 타르퀸(Tarquin)과 그의 무리들을 무력으로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2.2.85-95) 볼스키족(Volsces)과의 교전에서도 전세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홀로⁴⁾ 코리올라이(Corioli)의 성문으로 진입해 도시를 굴복시킨 바 있다(2.2.99-112). 코미니어스가 이렇게 코리올레

3) 허쉬먼(Hirschman)은 개인적 영광의 추구가 공공선의 증대에 기여하는 기제를 “보이지 않는 손”(the Invisible Hand)의 작동에 비유하면서 18세기 자유주의 경제 사상보다 앞선 시대의 정치적 사유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Hirschman 10).

4) 셰익스피어는 이 부분에서 원전을 수정하여 반영한다. 플루타르크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휘하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 코리올라이로 진입한다(Bullough 512). 뿐만 아니라 작품의 또 다른 원전으로 지목되는 리비(Livy)에서도 그는 동료들과 더불어 코리올라이를 함락시킨 것으로 묘사된다: “선발된 한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그는 도시 주민들의 공격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열려 있는 문으로 용맹하게 달려들었다”(With a picked band of soldiers, he not only repelled the attack of the townspeople but boldly burst through the open gate; Livy 170). 셰익스피어는 코리올레이너스를 도와주는 병사들의 존재를 삭제함으로써 코리올레이너스의 무력을 초인간적인 자질로 바꿈과 동시에 위르투스의 개인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이너스를 칭송하는 이유는 그의 용맹함의 도움을 받아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의 위르투스가 공화정을 보호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화정의 성패는 개인의 역량을 공공선의 증진에 기여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위르투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휘되는 한에서 공동체에 의해 인준되며 개인의 명예 또한 타인의 평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 즉 위르투스는 전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점⁵⁾에서 사적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칭송된다는 측면에서 공적이다. 맥도넬(McDonnell)은 로마 공화정에서 위르투스의 증명과 이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명예가 그 개인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높인 나머지 독재로 흐르게 되어 공동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르투스가 정치 지도자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한다(McDonnell 231).

그러나 역으로 말하자면 이처럼 위르투스의 발현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 부분 구속시켜야 한다는 관념 속에는 언제든지 위르투스와 그를 체화한 개인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다. 즉 개인의 역량과 공공선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개인의 명예와 공동체의 명예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위르투스의 이상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변질되어 공동체에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코미니어를 위시한 로마의 지도자 및 시민들은 코리올레이너스가 사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데에서 그의 공공성을 발견한다. 1막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볼스키족을 무찌르고 난 뒤 같이 싸운 “병사들의 편에 서서”(stand upon my common part; 1.10.39-40) 전리품을 같은 비율로 나누겠다고 선언한다. 이에 병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코미니어스 또한 투구를 벗고 그의 동료애와 겸손함에 경의

5) 개인이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을 바탕으로 증명해야 하는 위르투스는 공화주의의 맥락에서 개인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는 관념과 연결된다. 즉, 가문이나 혈통, 혹은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회가 부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수에 의한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기 계발을 독려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능력만으로 개인을 평가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브루니는 이러한 관점을 견지한 대표적 공화주의자였다. 그는 피렌체(Florence)가 번영하는 원인을 공화주의 이상의 실현으로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이 노력하고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건강하고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공직을 얻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등하다. 덕성과 신실함이 우리 도시의 시민들에게 요구된다. 이 두 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화정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문이 좋은 것으로 간주된다”(The hope of attaining office and of raising oneself up is the same for all, provided only one put in effort and have talent and a sound and serious way of life. Virtue and probity are required of the citizens by our city. Anyone who has these two qualities is thought to be sufficiently well-born to govern the republic; Bruni 124).

6 □ 권 동 육

를 표한다. 그러나 코리올레이너스의 이러한 행동은 엄밀히 말하여 소탈함이나 동지의 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가 전리품을 “자신에 검에 바치는 뇌물”(A bribe to pay my sword; 1.10.38)이라 칭하는 모습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 자체를 통해서 몸으로 증명하는 용맹함의 가치이지 그것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물질적 보상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보상은 위르투스의 순수성에 손상을 가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가 최후를 맞이하기 직전 자신의 용맹성을 부정하는 오피디우스(Aufidius)에게 코리올라이의 점령은 “내가 홀로 이룬 것”(Alone I did it; 5.6.117)이라고 강변하는 장면은 그가 동료 병사들의 무공을 인정하는 앞의 모습과 모순된다. 따라서 전리품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코리올레이너스의 공공성이 드러난다고 받아들이는 로마인들은 용맹함에 관한 코리올레이너스의 관념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오해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렇듯 셰익스피어는 작품 초반부부터 코리올레이너스가 인식하는 자신의 모습과 로마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그의 모습 간에 괴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코리올레이너스 개인의 명예와 공공적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예시는 1막 1장에서 그가 호적수로서 오피디우스를 평가할 때이다. 여기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세상이 반으로 갈라져 서로 싸움을 벌일 때 / 만약 그가 내 편이라면 난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 오직 그와 한 판 붙어보겠다”(Were half to half the world by th'ears and he / Upon my party, I'd revolt to make / Only my wars with him; 1.1.231-33)라고 말한다. 이 말은 오피디우스가 그의 맞상대로서 손색이 없는 대단한 장수임을 뜻하기 위한 것이지만 은연 중에 코리올레이너스가 공동체에 대한 기여보다 위르투스의 증명을 통해 얻는 개인적 명예를 더 우위에 놓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을 로마의 장군으로, 오피디우스를 적국 볼스키의 장수로 바라보지 않고 순수한 맞겨룸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비록 가정적 상황이지만 그가 속한 공동체에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오피디우스라는 “자랑스럽게 사냥할 / 사자”(a lion / That I am proud to hunt; 1.1.233-34)와 붙어 이김으로써 용맹함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코리올레이너스의 상상은 부분적으로 현실화된다. 코리올라이 공방 이후 그가 오피디우스와 직접 무력으로 겨루는 일은 없지만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후 그와 손잡고 망명 전사로서 로마를 침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으로서 코리올레이너스와 로마와의 관계를 단순히 대립한다고만 보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다. 그는 조국 로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상정하고 있는 로마라는 공동체를 실제의 로마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왜냐하면 코리올레이너스는 위르투스의 이상을 체현한 자신의 정체성과 로마 공화정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이상적인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군인으로서 응당 지녀야 할 용맹성을 담지해야 하고 이러한 용맹의 증명을 통해서만 공화정체의 일부로서 인준

될 수 있다. 따라서 코리올레이너스는 그 자신만이 로마공화정의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로마를 대변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평민들을 대면했을 때 그들을 묘사하는 태도에서 코리올레이너스의 배타적인 면모가 잘 나타난다. 그는 절대 그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칭하지 않는다. 1막 1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곡물 가격 때문에 일군의 평민들이 무장한 채 항의하자 코리올레이너스는 이렇게 말한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 부스러기들아”(Go get you home, you fragments; 1.1.220). 또한, 볼스키족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는 이 소식을 받기면서 외부의 위협이 로마의 “곰팡내나는 여분”(musty superfluity; 1.1.224)을 처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에게 있어서 평민들은 완전성을 갖춘 개체로 인정받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을 갖추긴 했으되) 시민 이하의 잉여로 표상된다.⁶⁾

그가 이처럼 민중을 멸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근거에는 그들이 용맹함이라는 덕목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시민에 걸맞은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로마가 평민들에게 곡물을 무상으로 배급한 행위의 부당함을 꼬집으면서 코리올레이너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그들은 [평민들은] 우리가 곡물을
합당한 보수로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소, 그에 걸맞은
수고를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기에 그렇소.
심지어 국가의 핵심부가 위협에 처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있을 때조차
그들은 문 바깥으로 헤치고 나가기를 거부했지.
이 따위 봉사로는 곡물을 무상으로 받을 자격이 없소.
전쟁에 나가서는, 폭동과 반란에서 그들이 보여주던
그 대단한 용맹함은 쑥 들어가 버린 것이오.

They [the plebeians] know the corn
Was not our recompense, resting well assured
They ne'er did service for't. Being pressed to th' war,

6) 로마를 자신이 지지하는 가치나 그가 속한 계층을 대변하는 것으로 표상하는 것은 비단 코리올레이너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메네니우스(Menenius)가 평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을 보고 “로마와 그에 딸린 쥐들이 한 판 싸움을 벌일 참이랴오”(Rome and her rats are at the point of battle; 1.1.159)라고 말할 때 로마는 귀족들의 로마를 지칭한다. 반대로 호민관(tribunes)들이 “도시가 민중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랴 말인가?”(What is the city but the people?; 3.1.199)라고 묻고 평민들이 이에 동조할 때 로마는 평민들의 로마를 가리킨다. 이처럼 양 계급이 로마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로마는 조화롭고 완전한 정체(body politic)으로 표상되지 못하고 파편화 된 그로테스크한 육체로 바뀌어서 묘사된다. 다만 코리올레이너스가 자신과 로마를 동일시하는 것이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장 공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율리우스의 이상을 가진 자가 공동체 내부 무질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고, 후에 로마로부터 추방된 이후에는 로마를 가장 큰 위협에 빠뜨리는 외부적 위협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Even when the navel of the state was touched,
 They would not thread the gates. This kind of service
 Did not deserve corn gratis. Being I'th' war,
 Their mutinies and revolts, wherein they showed
 Most valour, spoke not for them. (3.1.122-29)

코리올레이너스가 보기에 평민들은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용기가 필요할 때에는 침묵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에 반항하는 비겁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조국의 안녕을 위해 군인으로서 요구되는 방식의 봉사를 행하지 못한 이들에게 곡물을 무상으로 배급한다는 사실은 로마의 이상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중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측면에서 “불복종”(disobedience; 3.1.119)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이고 “국가의 멸망”(the ruin of the state; 3.1.120)을 앞당기는 일이다. 게다가 그가 머리가 여럿 달린 “히드라”(Hydra; 3.1.95)라고 묘사하는 평민들은 쉽게 이전의 결정을 바꾸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국가적 단결을 촉진하기는커녕 기존의 위계질서마저도 와해시킬 위험을 항상 지니고 있다. 코리올레이너스는 상이한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공존하는 집합으로서의 국가의 자유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르투스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조직 자체를 용맹함의 집합적 단위로, 즉 위르투스의 순수한 체현으로서의 자신과 동일한 것으로 표상한다. 이에 근거하여 그는 평민들이 귀족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을 때 로마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계획은 틀어져 아무 것도 / 처음의 계획대로 될 수 없을 것”(Purpose so barred, it follows, / Nothing is done to purpose; 3.1.150-51)이라고 일갈한다. 로마가 엄격한 위계질서에 기반을 둔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코리올레이너스의 가치관은 그가 추구하는 무사적 가치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서 로마가 용맹을 떨쳐야 할 때 평민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장군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민은 절대 로마의 무사적 이상으로서의 “독수리를 쪼아대는 까마귀”(The crows to peck the eagles; 3.1.141)가 되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처럼 코리올레이너스가 그 자신만이 로마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그는 엄밀히 말해 같은 계급에 속한 귀족들의 가치를 곧이곧대로 대변하지 않는다. 그는 메네니어스를 비롯한 귀족들을 현재 로마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과 또한 그 의무가 있는 지도 계층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귀족들은 평민들과의 갈등을 다름에 있어서 코리올레이너스만큼 급진적이지는 않다. 메네니어스의 우화 장면이 잘 그려내듯이 그들은 작금의 질서를 뒤바꾸는 일 없이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민관과 민중들이 코리올레이너스 자신을 로마로부터 추방하자고 하였을 때 이들을 성공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귀족들은 그가 보기에 더 이상 귀족

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 즉, 귀족들은 고귀함(nobility)에 미치지 못하는 인물들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가 로마를 떠나 볼스키족의 오피디어스(Aufidius)에게 망명을 요청할 때 로마의 귀족들을 자신을 내팽개친 “겁쟁이”(dastard; 4.5.76)로 묘사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그의 인식을 증명해준다. 이렇게 평민도, 귀족도 대변하지 않고, 또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들의 집합으로서 로마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 자신과 로마를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코리올레이너스를 “도시의 주민들을 절멸시켜 버리고 / 그 자신만이 모두가 되고자 하는 독사(this viper / That would depopulate the city and / Be every man himself; 3.1.265-67)로 지칭하는 호민관 시시니어스(Sicinius)의 말은 정적에게 내뱉는 공격적 언사를 넘어 코리올레이너스와 그가 표상하는 위르투스에 내포된 위협에 대한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계급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로부터 고립될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 왜냐하면 그가 동일시하는 로마의 이미지가 현실의 그것과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로마와 코리올레이너스 자신의 일체화가 깨어질 때, 이제까지 그를 지탱해왔던 개인적 명예심은 그 자신을 공동체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자신을 내친 로마를 로마가 아닌 것으로 부정하도록 만든다. 호민관 브루투스(Brutus)가 로마로부터 그를 추방한다고 할 때(3.3.117-19), 코리올레이너스는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추방한다”(I banish you; 3.3.124)고 선언한다. 바로 이 대사에서 그가 자신이 속한 로마라는 국가의 힘에 의해 추방당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을 로마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코리올레이너스가 생각하기에 로마다움(Romanitas)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은 호민관과 그들을 따르는 평민이 아니라 바로 코리올레이너스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3. 코리올레이너스의 몰락 혹은 위르투스의 실패

코리올레이너스라는 인물을 분석함에 있어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핵심 인물은 그의 어머니 볼룸니아(Volumnia)이다. 그녀의 존재는 코리올레이너스가 위르투스의 이상이란 맥락에서 조국 로마에 의해 배양된 인물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인자하고 애정이 넘치는 어머니 상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는 위르투스를 직접 체현할 수 없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코리올레이너스를 제외한 작중 어느 남성 인물보다도 로마다운 용맹함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다. 그녀가 처음 등장하는 1막 3장은 이러한 면모를 잘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위르투스의 이상이 어머니로부터 유년기의 코리올레이너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게다가 평온한 가정과 혼란스러운 전장의 대비와 코리올레이너스의 아

내 버질리아(Virgilia)의 성격 또한 함께 재현하는 이 장은 플루타르크와 리비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창조력을 발휘한 부분으로서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더욱 각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왜냐하면 원전과는 별개로 셰익스피어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볼럼니아는 코리올레이너스가 사내아이로 태어났을 때보다 그가 진정으로 사내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더욱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위험한 곳으로 향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다”(pleased to let him seek danger where he was like to find fame; 1.3.12-13)고 말한다. 그녀가 보기에 비굴한 삶보다는 용감한 죽음이 더욱 값진 것이며, 진정한 명예는 전쟁에서 무사히 생활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림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하지 않고 용맹함을 유지하는 것에서 나온다. 코리올레이너스의 초인적인 용맹함은 이처럼 그의 어머니 볼럼니아의 소망이 그대로 현실화한 것이다. 볼럼니아가 옹호하는 용맹함의 가치는 로마 사회가 요구하는 위르투스의 이상과 일치한다. 따라서 칸(Kahn)의 지적대로 볼럼니아와 그녀의 아들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의 위르투스라는 무형의 이데올로기 혹은 문화적 텍스트가 새겨진 구체적인 표상이 된다(Kahn 148).

위르투스의 이데올로기가 볼럼니아와 코리올레이너스를 이어주는 강력한 끈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는 그녀가 일종의 황홀경에 빠진 채 코리올레이너스가 볼스키족과의 전쟁에 나가서 취할 말과 행동들을 상상하여 읊은 이후에 실제로 그가 볼럼니아가 상상한대로 행동하는 부분이다.⁷⁾ 이러한 일치는 코리올레이너스의 호전성과 평민들에 대한 특유의 적대감을 형성한 원천이 볼럼니아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최후까지 그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심리적 애속까지도 미리 암시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도 자궁(womb)의 은유(5.3.125)를 통해 볼럼니아와 로마가 동일시됨을 상기할 때 코리올레이너스는 근본적으로 자신을 창조한 상징적 어머니로서의 로마에 애속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럼니아와 그의 아들이 의견의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코리올레이너스의 집정관 입후보 문제가 그러하다. 볼럼니아는 그가 용맹함의 증

7) 다음의 두 대사를 비교해보라. 볼럼니아의 말은 이러하다: “그가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는 것 같구나: / ‘일어나라 이 겁쟁이들아, 너희들은 로마에서 태어났음에도 / 겁을 집어먹었구나!’”(Methinks I see him stamp thus, and call thus: / ‘Come on, you cowards, you were got in fear / Though you were born in Rome!’;1.3.33-35). 이어지는 5장에서 코리올레이너스가 전장의 한 가운데에서 외치는 대사는 다음과 같다: “로마의 수치들아! . . . / 사람의 탈을 쓴 거위들 같으니, / 원숭이들도 능히 물리칠 / 노예 같은 것들로부터 도망치다니! (You shames of Rome! . . . / You souls of geese / That bear the shapes of men, how have you run / From slaves that apes would beat!; 1.5.2-7)

명을 통해 쌓은 명예를 밀친 삼아 그가 로마 최고의 정치지도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녀가 아들을 누구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장군으로 키운 까닭은 집정관이 전쟁 사령관과 정치가의 역할을 동시에 행하여야 하는 로마에서 장수로서의 자질을 입증하는 것이 집정관으로 향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코리올레이너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메네니어스에게 “집정관직에 입후보 할 때 / 민중들에게 보여줄 / 큰 흉터들이 있을 것이라”(There will be / large cicatrices to show the people when he shall stand / for his place; 2.1.143-45) 말한다. 그녀는 이미 코리올레이너스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그를 집정관으로 만들 계획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상처를 민중에게 보여주는 것이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코리올레이너스가 입은 상처 하나하나가 그가 공화정을 위해 목숨을 각오하고 충성을 바쳤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장군의 상처를 통해서 그를 지지하는 민중의 목소리(*vox populi*)가 들려오는 것이다. 이처럼 ‘흉터 보여주기’의 의식은 개인의 위르투스나 공동체에 의해 인준받음으로써 비로소 공공성을 획득하고 공화주의의 덕목으로 기능함을 상징하는 의식이라 볼 수 있다. 볼럼니아는 코리올레이너스에게 이러한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책략”(policy; 3.2.44)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즉 그녀는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조정 및 설득의 기술인 수사(rhetoric)와 능변(eloquence)을 발휘하여 민중을 지지자로 포섭하길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코리올레이너스는 처음에 볼럼니아의 계획에 회의를 표시하며 집정관 후보로 나서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방식대로 통치하기보다는 / 저 나름의 방식대로 봉사하고자 합니다”(I had rather be their servant in my way / Than sway with them in theirs; 2.1.199-200). 그러나 결국 어머니의 청에 못 이긴 그는 집정관이 되고자 하지만 민중에게 상처를 공개하는 것은 한사코 꺼려한다. 집정관 후보가 허름한 옷을 입고 민중과 직접 대면하여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관례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가 관습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용맹의 증표인 상처가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는 상처 공개가 자신의 자질과 그것으로 대변되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상품화한다고 보고 이것이 그의 본질 자체를 위협한다고 느낀다. 게다가 그가 자신을 정치적 상품으로서 홍보해야 할 대상이 그가 로마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민중이라는 점은 그를 더욱 완강하게 만든다. 무엇보다도 위르투스의 이상에 부합되도록 길러진 그에게 애초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속한 집단들의 목소리를 말을 통해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행위로서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가 이제껏 수행해 온 전쟁에서 그는 상대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절충하기는커녕 반대자의 목소리를 영원한 침묵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신의 용맹함을 내세우면서 그는 코리올라이의 남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과부와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의 울음으로 채웠

다고 말한다(2.1.173-75). 또한 메네니어스가 적절하게 지적하듯 코리올레이너스의 “모든 상처는 적들의 무덤”(Every gash was an enemy’s grave; 2.1.151-52)이다. 이처럼 반대자와의 대면을 생과 사의 힘의 대결로 치환하여 인식하는 태도가 몸에 베어 있는 코리올레이너스에게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교묘한 상징조작⁸⁾까지도 불사하기를 요구하는 정치의 영역에 뛰어드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코리올라이를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임무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는 불만을 품고 있는 민중이 언젠가는 로마의 위계질서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귀족들이 연민을 거두고 / 내 검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만 한다면”(Would the nobility lay aside their ruth / And let me use my sword; 1.1.194-95) 민중들을 도륙해 버릴 것이라 말한다. 또한 그는 호민관 제도의 설치를 평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계급 간의 갈등을 보다 원만한 형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 그들이 “폭동”(a rebellion; 3.1.168)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바라보고 갈등이 잦아든 현재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호민관과 평민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받아들여기를 거부하는 그의 완고함이 공화정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자 결국 그는 현재의 자신을 만들고 길러낸 로마로부터 추방당한다. 개인의 활약을 공공성과 결합시키고자 하는 로마적 위르투스의 이상이 그 의도와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기획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로마를 떠나 오피디어스를 위시한 볼스키족에게 투항한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에 복수를 다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가 실행하고자 하는 복수는 단순히 당한 만큼 되 돌려 준다는 사적 복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코리올레이너스에게 현재의 로마는 이제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사회적 힘으로 기능할 수 없다. 오히려 로마는 그가 “스스로의 창조자”(author of himself; 5.3.36)로서 사회와 절연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바쳐져야 할 제물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된 존재, 창조의 사슬 바깥으로 벗어나 독자적으로(*sui generis*) 기능하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코리올레이너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 이 때 그의 폭발할 듯이 확장된 자아가 추구하는 성격은 자신의 이름(Martius)이기도 한 용맹함(위르투스)의 순수한 발현인 마르스(Mars)이다. 코미니어스의 다음과 같은 대사는 이러한 코리올레이너

- 8) 작품의 서두에서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성난 민중들이 귀족계급과 무장 투쟁을 불사하며 원로원으로 향하려고 할 때 메네니어스가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위(胃)의 우화’(The Belly Fable)는 상징조작의 대표적인 예시이다(1.1.93-151). 그는 위가 음식물을 먼저 받아들여지만 곧 이를 소화시켜 몸의 다른 장기들로 분배하고 자신은 찌꺼기만 가지듯이, 원로원 또한 곡물을 선점하더라도 곧 이를 민중의 이익에 맞게 조정을 거쳐서 분배하는 것이라 이야기한다. 비유적 차원에서 메네니어스의 우화는 흙 잡을 데가 없지만 민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답은 아니며 실제적인 경제적 갈등을 해결해주지도 못한다.

스의 기획을 잘 표현해 준다.

‘코리올레이너스’
 그는 이에 대답하지 않고 모든 이름을 거부했소.
 그는 어떤 직함도 없는 일종의 무(無)였소이다.
 타고르는 로마의 불길로 그가
 새로운 이름을 주조해내기 전까지는.
 ‘Coriolanus’
 He would not answer to, forbade all names;
 He was a kind of nothing, titleless,
 Till he had forged himself a name o’th’ fire
 Of burning Rome. (5.1.11-15)

이제 로마는 코리올레이너스가 그의 무력을 통해 지켜내야 할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 스스로 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를 낳고 기른 로마를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 관계의 흔적마저 지워버리려 한다. 위르투스가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동체가 개인적 자아와 위르투스의 절대성을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용문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코미니어가 코리올레이너스를 “무”(nothing)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마와 절연한 코리올레이너스는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된다.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은 로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보증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관습, 그리고 도덕 규범을 가지고 있는 로마라는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이 위치하는가에 달려있다.⁹⁾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탈구된 개인은 단순히 비로마인이 아니라 비인간이 된다. 코리올레이너스의 비인간화 과정은 그가 추방령을 받은 이후 스스로 혹은 타자가 그를 호명하는 방식이 변화한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 4막 1장에서 코리올레이너스는 로마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외로운 용”(a lonely dragon; 4.1.31)이라 지칭하면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또한 코미니어스는 볼스키족을 일사불란하게 이끄는 코리올레이너스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신”(god; 4.6.94) 혹은 “천지만물과는 다른 신격이 빚어낸 / 물상(物象)”(a thing / Made by some other deity than nature; 4.6.94-95)이라 칭하며 그의 비인간화를 증언한다. 신화적 동물, 신 자체,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는 형상, 그리고 종래에는 아무 것도 아

9)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적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사실은 평민들을 비난하던 코리올레이너스 스스로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대사를 보라. “그놈들이 스스로 보이는 꼴처럼 야만인이었으면 좋겠다 / 로마에서 새끼를 쳤다 할지라도; 그놈들이 보여주듯이 로마인은 아니다 / 카피톨 언덕의 입구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I would they were barbarians, as they are, / Though in Rome littered; not Romans, as they are not, / Though calved I’th’ porch o’th’ Capitol; 3.1.238-40).

닌 무(nothing)로 등장하는 코리올레이너스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이처럼 자신을 둘러싸는 혹은 읊아매는 집단의 힘으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로 초점이 모아진다.

셰익스피어는 이 질문에 대해 극의 결말을 통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코리올레이너스의 홀로서기를 좌절시키고 결국 그를 최후로 몰아가는 존재는 그를 낳고 길러준 볼럼니아다. 로마의 수호와 아들의 승리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비극적 선택에 직면한 그녀는 로마를 침공하려는 코리올레이너스를 단념시키기 위해 몇 개의 수사적 전략을 내세운다. 자신에 대한 아들의 심리적 예측을 인식하고 있는 볼럼니아는 로마를 그를 낳은 “자궁”(womb; 5.3.125)에 비유하면서 그의 생물학적 어머니인 자신과 동일시하고, 따라서 로마를 짓밟는 것은 그의 어머니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볼럼니아가 상정하고 있는 로마와 절연한 코리올레이너스에게 이러한 설득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오히려 그를 결정적으로 단념시키는 순간은 볼럼니아가 아들의 개인적 명예와 평판을 문제 삼을 때이다. 그녀는 “고귀한 인물이 과거의 부당한 행위를 / 계속 안고 있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나?”(honourable for a noble man / Still to remember wrongs?; 5.3.155-56)라고 물으며 그가 로마와의 전쟁을 취소하는 것만이 그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변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조국을 짓밟은 그의 “이름은 / 부를 때마다 저주가 달라붙을 것”(a name / Whose repetition will be dogged with curses; 5.3.144-45)이고 그는 영원히 명예롭지 못한 인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¹⁰⁾ 남아 있는 로마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명예를 위해 단념하라는 그녀의 설득 혹은 협박에 코리올레이너스가 굴복한다는 사실은 그가 여전히 개인적 명예의 획득을 핵심으로 삼는 위르투스의 이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볼스키족에 충성을 맹세한 상황에서 그의 명예를 위해 로마 침공을 단념한다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배반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는 그의 죽음으로 치러진다. 코리올레이너스는 철저하게 위르투스 이데올로기의 자장(磁場) 안에서 성장했고 성공하였으며 또한 실패한다. 이와 같은 그의 몰락은 개인의 실패임과 동시에 볼럼니아의 실패이기도 하다. 코리올레이너스의 실패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전제하는 공화주의적 인간관 및 그 바탕 위에서 인정되는 위르투스를 잘못 이해한

10) 코리올레이너스가 개인적 명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끝까지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는 최후에 그가 오퍼디어스의 모욕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할 때 던지는 말이다: “당신들이 연대기를 제대로 썼다면, 거기에 내가/ 비둘기집을 습격한 독수리처럼 / 코리올라이의 볼스키인들의 가슴을 전율케 했다는 사실이 쓰여져 있을 것이다”(If you have writ your annals true, 'tis there / That, like an eagle in a dovecote, I / Fluttered your Volscians in Corioles; 5.6.114-16)

데에서 비롯된다면 볼럼니아는 위르투스 이데올로기의 구체적 표상으로서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왔기 때문에 코리올레이너스의 죽음은 자식을 잃는 것임과 더불어 자신을 잃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¹⁾ 그리고 그녀는 궁극적으로 로마 공화정과 동일시된다는 점에서 코리올레이너스와 볼럼니아의 실패는 로마적 이상의 실패를 뜻하기도 한다.

4. 나가며: 로마 공화정의 이상(理想)을 해부하다

그렇다면 코리올레이너스를 속죄양으로 삼아 체제를 유지한 로마 공화정에 대해 셰익스피어는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로마는 코리올레이너스가 사라진 이후에 귀족과 평민의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오피디우스가 남아있는 볼스키족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대내외적으로 튼튼한 공동체로 자리잡는가? 셰익스피어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플루타르크와 리비는 양자 모두 코리올레이너스가 몰락한 이후 로마는 볼스키족과의 전쟁을 재개하였고 결국 그들을 제압했다고 기록하는데(Bullough 544; Livy 132), 이에 반하여 셰익스피어는 원전의 이와 같은 측면을 작품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로마 공화정이 볼스키족을 비롯한 외부의 위협과 그들을 대적할 만한 지도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 내부적 혼란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말은『줄리어스 시저』와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공화정 몰락 후에 성립되는 새로운 제정적 질서를 대변하는 옥타비우스(Octavius)가 남아 있는 로마를 수습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코리올레이너스』에서는 위르투스의 이상이 실패한 이후에도 새로운 대안적 가치와 질서가 등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로마 공화정은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적 정치체제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로마에 대한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친(親) 공화주의적 해석¹²⁾을 따르는 일군의 비평가들은 셰익스피어

11) 아델먼(Adelman)은 코리올레이너스의 복수 실패의 핵심적 원인이 어머니 볼럼니아에 대한 그의 심리적 복속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대표적 비평가이다(Adelman 120-49). 그녀의 글은 이제껏 핵심적 인물로 간주되지 못했던 볼럼니아에 대한 비평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코리올레이너스의 몰락을 어머니의 승리로 바라보는 관점은 그가 볼럼니아의 자아의 확장적 존재라는 사실을, 따라서 그의 패배는 볼럼니아의 패배 또한 의미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본 글은 두 인물이 로마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된 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점에서 양자 모두 비극적 패배자로 바라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12) “만일 [민중들의] 폭동이 호민관 제도의 탄생 원인이라면 그것은 최고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호민관들은 민중의 권리 집행에 걸맞은 몫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적 자유의 수호자로서 구성된 것이다”(if the tumults were the cause of the creation of the tribunes, they

가 민중을 정당한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그리면서 이들의 시민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호민관 제도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한다(Barton 159; Patterson 120-53). 그러나 이와 같은 독해는 셰익스피어가 작품 초반부에서는 민중을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개별적 주체의 집합으로 그리다가 호민관 설치 이후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위탁하면서 점차 획일화된 군중(mob)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해석으로 보인다. 그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고귀한 호민관들이 민중의 입이고 / 우리는 그들의 손이다”(The noble tribunes are the people's mouths, / And we their hands; 3.1.273-74)라 말하며 호민관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다. 아놀드(Arnold)의 지적대로 민중은 시민으로서의 명목적 권리는 획득하였을지 모르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며 실질적 권리는 그들의 대변자임을 자처하는 호민관들에게로 귀속되어 버리는 것이다(Arnold 197).

이 점을 염두에 둘 때 셰익스피어가 그리는 로마 공화정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이상적 정치 체제로서 기능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민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앞에서 다룬 공화주의 및 시민적 덕목으로서 위르투스와도 결부되어 있다. 공공선의 증진을 위한 시민 각자의 위르투스의 배양은 그들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골고루 부여되어야지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권리가 여전히 소수의 귀족과 호민관들에게만 주어진다면 공화주의적 입장에서 그러한 공동체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부패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셰익스피어가 로마 공화정과 그것의 핵심 이데올로기인 위르투스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분석한 결과 밝혀지는 것은 공화정을 지탱하던 중심 가치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코리올레이너스가 제거된 로마 공화정도 이상적 정체(政體)로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진다. 셰익스피어는 코리올레이너스 개인의 생애를 그리면서 로마 공화정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셈이며 이 과정에서 행한 공화주의 이념의 작동 방식과 그것이 전제하는 인간관의 세밀한 탐구는 정치 철학의 영역까지도 넘나드는 그의 극작 세계의 풍부함을 증명하는 사례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Adelman, Janet. ““Anger’s My Meat”: Feeding, Dependency, and Aggression

deserve highest praise; for besides giving popular administration its part, they were constituted as a guard of Roman freedom; Machiavelli, Discourses 75).

- in *Coriolanus*.” *Representing Shakespeare: New Psychoanalytic Essays*. Eds. Murray M. Schwartz and Coppélia Kahn.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0. 120-49. Print.
- Arnold, Oliver. *The Third Citizen: Shakespeare’s Theater and the Early Modern House of Commons*. Baltimore: Johns Hopkins UP, 2007. Print.
- Barton, Anne. “Livy, Machiavelli, and *Coriolanus*.” *Essays, Mainly Shakespearean*. New York: Cambridge UP, 1994. 136-60. Print.
- Bullough, Geoffrey. Ed. *Narrative and Dramatic Sources of Shakespeare*. London: Routledge, 1966. Print.
- Bruni, Leonardo. “Orations for the Funeral of Nanni Strozzi.” *The Humanism of Leonardo Bruni*. trans. Gordon Griffiths et al. Binghamton, New York: Medieval & Renaissance Texts & Studies, 1987. 121-27. Print.
- Hadfield, Andrew. *Shakespeare and Republicanism*. Cambridge: Cambridge UP, 2005. Print.
- _____. “Shakespeare and Republicanism: History and Cultural Materialism.” *Textual Practice* 17.3 (2003): 461-83. Print.
- Hirschman, Albert O.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rinceton: Princeton UP, 1997. Print.
- Kahn, Coppélia. *Roman Shakespeare: Warriors, Wounds, and Women*. London: Routledge, 1997. Print.
- Livy, Titus. *The History of Rome Books 1-5*. trans. Valerie M. Warrior.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2006. Print.
- Machiavelli, Niccolò. *Discourses on Livy*. trans. Harvey C. Mansfield and Nathan Tarcov. Chicago: U of Chicago P, 1996.
- McDonnell, Myles Anthony. *Roman Manliness: Virtus and the Roman Republic*. New York: Cambridge UP, 2006. Print.
- Patterson, Annabel. “*Speak, speak!*: The Popular Voice and the Jacobean State.” *Shakespeare and the Popular Voice*. Cambridge, MA: B. Blackwell, 1990. Print.
- Peltonen, Markku. *Classical Humanism and Republicanism in English Political Thought 1570-1640*. Cambridge: Cambridge UP, 1995. Print.
- Shakespeare, William. *The Tragedy of Coriolanus*. Ed. Brian Parker. New York: Oxford UP, 2008. Print.

Quentin Skinner. *The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al Thought: Vol 1 The Renaissance*. New York: Cambridge UP, 1978. Print.

_____. *Visions of Politics Volume 2: Renaissance Virtues*. New York: Cambridge UP, 2002. Print.

ABSTRACT

Shakespeare's Anatomy of the Roman Republican Ideal in *Coriolanus*

Dong-Wook Kwon

This paper explores how Shakespeare's *Coriolanus* dramatizes the inherent contradictions of the Roman Republican ideal by portraying both the success and ultimate failure of its eponymous character. *Virtus*, originally meaning in Latin military prowess but also implying readiness to promote the common good, constitutes the core value of the republic. Its owner is requested to pursue public interest and acquires personal honor in return; when manifested properly, *virtus* may ensure the flourishing of the community as well as of the individual. Coriolanus, a distinguished Roman general who embodies the republican value, saves his country from the Volsces' attack and is encouraged to run as a candidate for the consulship. Blind to Rome's heterogeneous social strata, however, he stubbornly refuses to be acknowledged by the populace, believing there is no one but him who is truly Roman and represents *Romanitas*. His consequent banishment illustrates the malfunction of the *virtus* ideology since it fails to channel one's personal talent into furthering Rome's public interest. Moreover, Coriolanus poses an even heavier threat against his native country after he allies himself with the Volsces. Coriolanus must sacrifice Rome in order to become an autochthonous being. But his last project is thwarted by his mother, Volumnia, who has hitherto inculcated *virtus* upon Coriolanus. Rather than reminding him of his public obligation as a general, she admonishes him that *personal* shame will always follow him once he ravages his own country. Coriolanus's submission to his mother's logic attests to the failure of the Roman Republican ideal as well as of his becoming a self-sufficient being. *Virtus* generates a distorted individualism in him, ruining his public career and ultimately sacrificing his own life. Shakespeare's

s microscopic analysis of *virtus* gives an ominous picture of the republican ideal which, contrary to its design, could render the community vulnerable to a powerful individual and also lead to the self-destruction of its bearer.

Key Words Shakespeare, *Coriolanus*, republicanism, *virtus*, politics, the Roman Republic, civic virtue